경기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GyeongGi Arts & Culture Education Support Center

2017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
-기획공모 <다시, 꿈다락> 총평-

심사위원 서 명 (인)

서 명 (인)

서 명 (인)

많은 공모지원사업 중에서 <다시, 꿈다락>은 공모에서 탈락하는 기획서나 단체들에게 구체적으로는 그 이유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시해주었습니다. 심의의 목적이나 내용이 제안된 프로그램(안)을 비평하거나 점수를 매기는데 있지 않고 문화나 예술에 대한 이해, 인문적 시선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어떤 면에서 필요한지 이야기해보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생각해도 될 듯합니다. 그런 면에서 모든 단체들이 진지하게 공모에 참여해주셨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.

많지 않지만 젊은 예술가나 기획자들의 등장은 매우 반가웠습니다. 신생 단체가 더 많이 보였으면 좋았겠다는 바람도 가져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행정적 간소화가 함께 고민되면 좋을 듯합니다.

그러나 전체적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생각이나 경험을 선명하고 간결하게 기획서에 녹여낼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.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다시 꿈다락의 취지, 예술교육의 목적이 부족하다는 점은 향후에 각자,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과제를 선명하게 해주었습니다. 동시에 공모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공유할 수 있었고 기획서를 매개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배움이 시간이 되어주었습니다. 앞으로 마중물 시간 등 다양한 활동의 자리를 통해 조금이나마 이를 해소하고 고민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.